

8

솔로몬의 성전 건축

Chapter

대하 2~7장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 2장 (내 안에 있는 예수)

오늘 배울



말씀

1.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에 즐거이 참여했음을 압니다.
2.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임을 압니다.

마음 열기



"똑 똑 똑"

중고등부의 한 분반 학생들이 비록 적은 돈이지만 어려운 해외 교회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지난 몇 개월간 기도 가운데 함께 모은 돈을 들고 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줍은 듯 겸연쩍은 미소로 붉어진 학생들의 청아한 얼굴은 잠시나마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저의 뇌리에 각인되었습니다.

주여! 학생들이 드리는 이 적은 물질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이해하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린 다윗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했습니다. 또한 아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 주신 성전의 식양을 주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전 건축을 수행할 것을 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그와 함께하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모아 성전 건축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함으로써 백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이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장소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 주고 사서 성전 터로 삼았습니다. 이렇듯 철저한 다윗의 준비와 백성들의 합심, 협력, 순종을 바탕으로 솔로몬은 재위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에는 이방인들도 동참하였으며, 건축하는 동안에 전 안에서는 돌을 다듬는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7년만인 솔로몬 재위 11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질 교회에 대한 예표입니다. 주님은 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0~22)

having been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Jesus Christ Himself being the chief corner stone, in whom the whole building, being joined together, grows into a holy temple in the Lord, in whom you also are being built together for a dwelling place of God in the Spirit. (Eph 2:20~22)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대상 28:9~10)

(대하 6:18~21)

(왕하 7:15~20)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히브리서 10장은 구원을 자세히 설명한 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0장 19~25절까지 읽고 다음에 답해 보세요.

1. 21절에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집이란 누군가가 사는 곳이므로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어디 혹은 누구를 말할까요? 히 3장 5~6절을 읽고 답을 적어 보세요.
2. 21절의 하나님 집 사람들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히 10:19,22)?
3. 21절의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히 4:14, 7:20~21)?
4. 22절은 하나님의 집에는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집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점검하고 나아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일 때 점검해야 할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5. 하나님의 집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격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24절에서 찾아 기록해봅시다.
6.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집 사람들이 더욱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지 25절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나는 이 일에 힘쓰고 있나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교제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될 것을 결심합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성경의 맛

신앙 생활의 모습을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쓴약 형

성경 말씀이 아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입에 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겨우 성경을 펼칩니다. 어려운 부분을 치료하는 데는 조금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현미밥 형

말씀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기는 하는데 너무 입이 뻑뻑해서 한 양동이의 건초를 먹는 것과 같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성경의 깊은 맛을 몰라 의무감으로 성경을 대합니다.



아이스크림 형

먹고 또 먹어도 성이 안 차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먹고 싶어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성경의 유익을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맛이 어떻습니까?
쓴 맛입니까, 뻑뻑합니까, 달콤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렘 15:16)

감사함으로 돌을 다듬는 석공

18세기 영국에 '크리스토퍼 제임스 렌(Cristopher James Wren)'이란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런던에 세인트 폴 대성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여러 해 계속하던 어느 날 평복을 입고 공사장에 나갔습니다.

힘들게 돌을 깎고 있는 한 석공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석공이 투명스런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길이 6자, 너비 3자의 돌을 다듬고 있소." 그는 다른 석공에게 다가가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또한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보면 모르오? 돌을 쪼고 있잖소. 이게 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지요. 벌써 몇 년째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라오." 라면서 짜증을 내었습니다.

수심에 잠긴 렌은 다른 석공에게 다가가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는 뜻밖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당을 짓고 있소.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이 이 거룩한 일에 한몫을 담당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같이 이 돌들을 다듬고 있지요!"

이 말에 감격한 렌은 그 석공에게 진심어린 경의를 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렌과 그가 건축한 세인트 폴 대성당)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